

For the future

대북포용정책 2년



3878

UM00003878

U
00-052

대북포용



통일부 북한자료센터

Information Center
On North Korea

<http://unibook.unikorea.go.kr>

우리는 함께 나아가야 합니다.

기분좋은 동질감...

그 곳에서 가슴 깊이
느꼈습니다

평양행 고려항공 기내에서 낯선 땅으로 향하는 두려움과 아무나 갈 수 없는 곳으로 들어선다는 설렘이 교차했다. 묘한 기분... 봉화예술극장에서의 공연. 객석을 가득 채운 평양 시민들의 열렬한 박수소리에 가슴이 뛰었다. 그 어떤 공연에서도 느낄 수 없었던 이런 기분을 뭐라 설명해야 할지... 민족통일음악회에만 몰두한 4일. 처음 보는데도 전혀 낯설지 않은 얼굴들... 기분좋은 동질감... 분명 같은 민족이라는 느낌이였다.



(예술인 오정혜)

살아 생전에 꼭 한 번 만이라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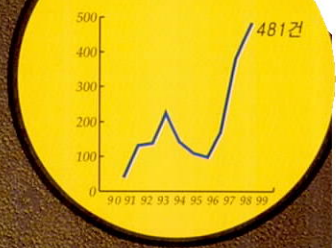


1999년 11월 24일, 북한에 있는 동생과 헤어진지 52년만의 재회. 이미 65살의 할아버지가 되어버린 동생 경두. 평생 흘린 눈물보다 더 많이 울었던 그 날 그 감정을 어찌 말로 다 표현할 수 있을까. 지금 당장 눈을 감아도 여한이 없을 것 같았다. 드디어 나는 꿈에 그리던 동생을 만났다. 그렇지만 아직도 헤어짐의 슬픔을 가슴에 묻고 사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면... 다행히 지금은 정부에서 경비를 지원해주며 북한에 있는 가족과의 상봉을 적극적으로 돕는다니 정말 반갑다. 늦기 전에 한 사람이라도 더 나와 같이 평생의 한을 풀었으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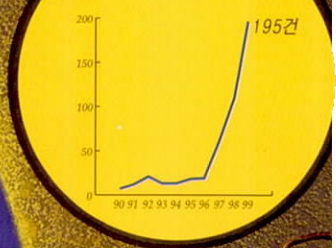
한국우주환경과학연구소 조경철 박사



생사확인 동향



제3국 상봉 동향



이산가족 교류 활성화 노력

- 남북당국간 회담(1998년 4월, 1999년 6~7월 베이징) 개최
 - 생사확인, 서신교환, 상봉면회소 설치 등 실천방안 제시
- 제3국을 통한 이산가족 상봉 교류경비 지원

이산가족 교류 행정서비스 개선

- 이산가족 교류절차 간소화
 - 허가제 → 신고제
 - 신청서류 항목 74개 → 28개
- 이산가족정보통합센터 설치

인터넷 서비스 (reunion.unikorea.go.kr) 실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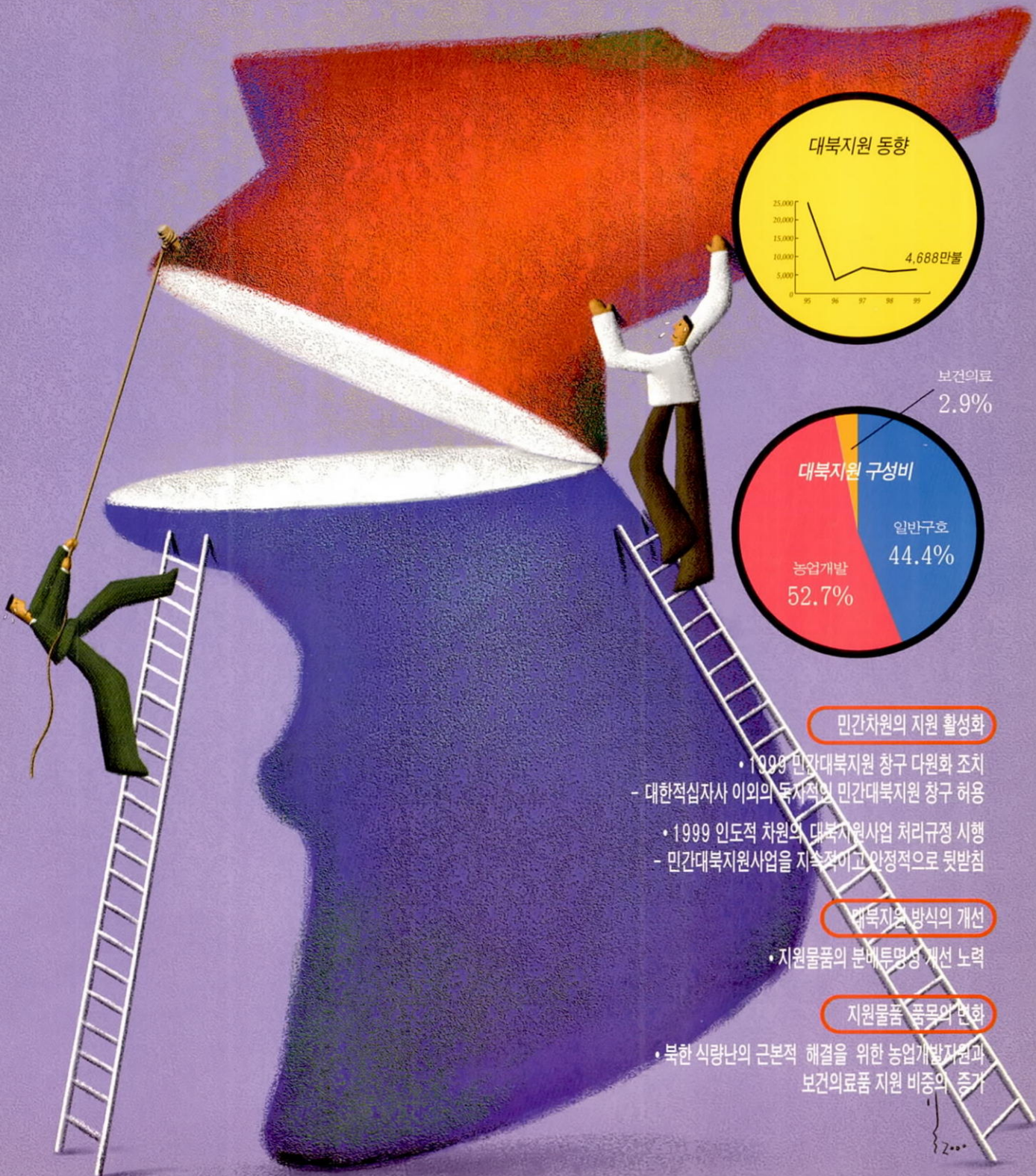
필요한 사람에게

전달되도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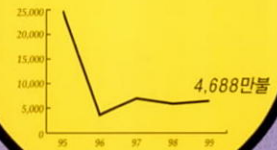
확실히

지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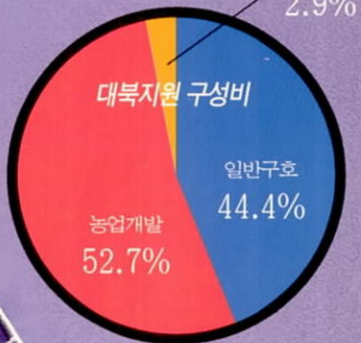




대복지원 동향



대복지원 구성비



민간차원의 지원 활성화

- 1999 민간대복지원 창구 다원화 조치
- 대한적십자사 이외의 독자적인 민간대복지원 창구 허용
- 1999 인도적 차원의 대복지원사업 처리규정 시행
- 민간대복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인정적으로 뒷받침

대복지원 방식의 개선

- 지원물품의 분배투명성 개선 노력

지원물품 품목의 변화

- 북한 식량난의 근본적 해결을 위한 농업개발지원과 보건의료품 지원 비중의 증가

작은 투자에 미래의 큰 꿈을 담았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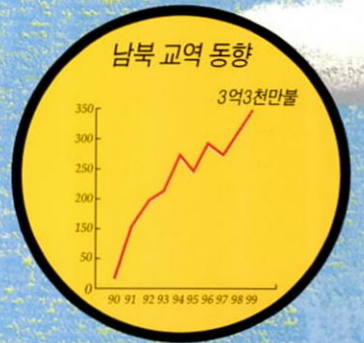


평양에 모니터 공장을 세운지 2년 - 제품의 가격 경쟁력을 갖추기 위한 선택이었다. 다른 나라에 비해 쉽게 말이 통하고 열심히 일을 배우려는 근로자들이 있어 힘이 솟았다. 물론 낮은 환경에 적응하기가 쉽지 않고, 당장 눈앞에 보이는 이익도 그다지 많지 않다. 하지만 미래는 노력하는 자의 몫이라 생각한다. 정부도 대북투자 규모의 제한을 없애고 각종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지원을 아끼지 않고 있다. 그 결과 1999년도 남북교역액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대북투자에 관심을 갖는 기업인도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북한에서도 경제협력분야에 대한 관심이 커져가고 있다. 우리의 작은 실천이 남북경제공동체를 만드는 지름길이라고 믿는다.

평양에 모니터 공장을 세운 유완영 회장



남북 교역 동향



남북 위탁가공 교역 동향



남북경협 지원체제 구축

- 남북경협 활성화 조치
 - 경협을 위한 접촉, 방북요건 완화
- 남북교역 물품의 반출·입 승인절차 간소화
 - 투자규모 제한 폐지
- 남북협력기금 지원지침 마련
 - 남북협력기금을 중소기업에 대출

대규모 경제협력사업 확대

- 현대의 서해안공단사업
- 삼성의 전자제품 임가공 및 소프트웨어 개발사업
- 평화자동차의 자동차 조립·수리 공장건설 등

...}

남과 북, 다양한 만남과 많은 이야기가 생기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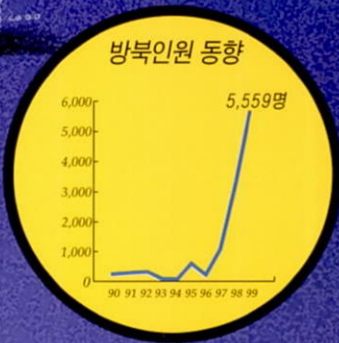
그 곳에서 화해의 가능성을 보았습니다



첫 출항. 그 전이라면 상상하지도 못했던 금강산행이라 일정 내내 긴장 상태였다. 천혜의 절경이라는 금강산이 눈에 들어오지 않을 정도였으니... 날마다 군사분계선을 넘나드는 지금, 특별한 사람이 아니라 누구나 금강산에 갈수 있다는 사실이 새삼 감격스럽다. 이제는 서울과 평양에서 공연과 스포츠 경기가 열리고 경수로 건설현장에서는 남북 근로자가 함께 땀 흘리고 있다. 또한 금강산 관광길도 열려 남북한 사람들이 서로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많아졌다. 남과 북의 교류가 더욱 더 확대되어 우리 젊은이들이 함께 백두대간을 누비는 그 날이 하루빨리 왔으면 좋겠다.



금강산 관광 풍악호 이지수 지배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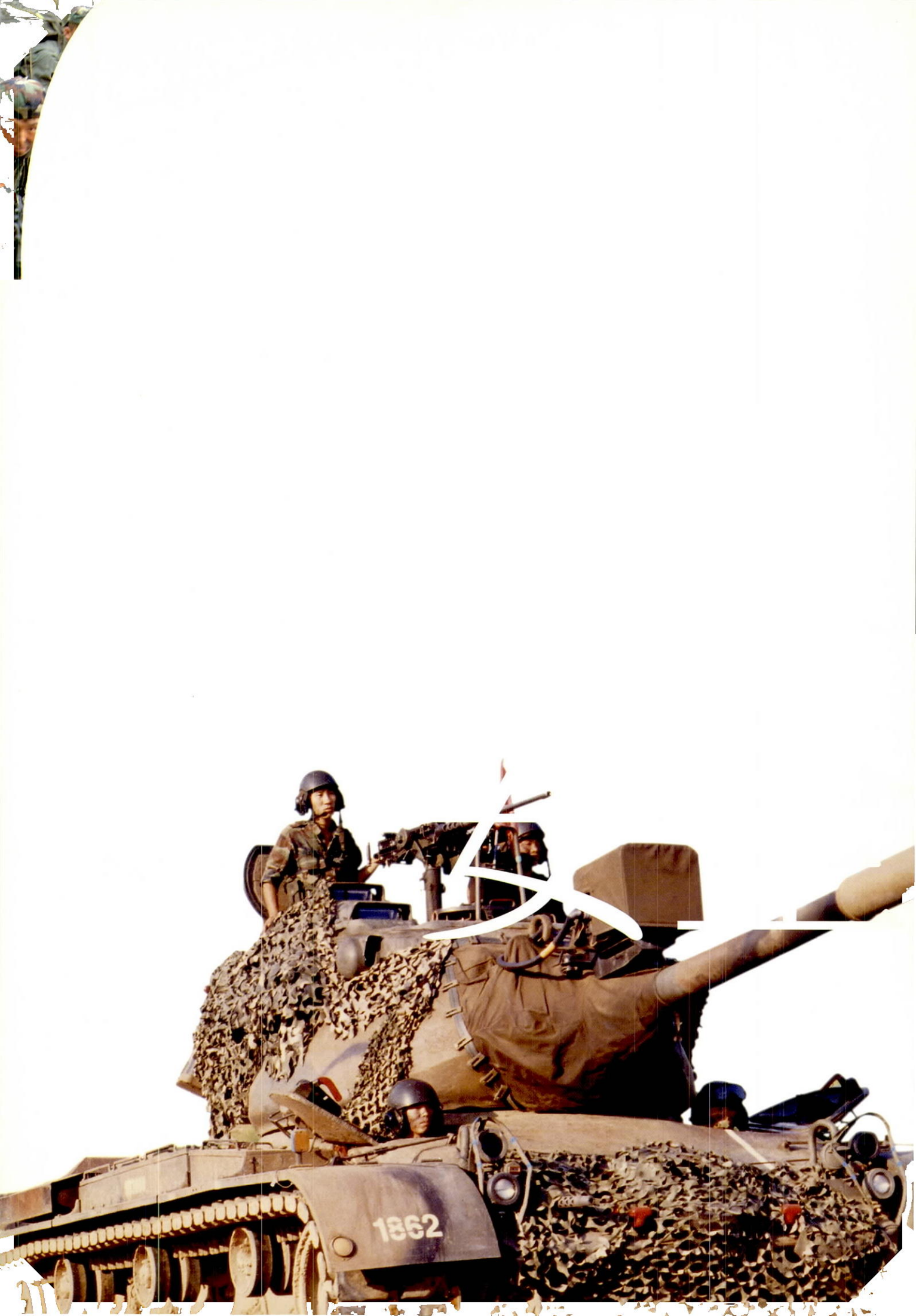


사회문화 교류의 다양화

- 1998. 리틀엔젤스 평양공연
윤이상통일음악회
- 1999. 평화친선 음악회
민족통일 음악회
남북노동자축구대회
통일농구경기

금강산 관광 추진

- 1998. 금강산 관광사업 남북협력사업으로 승인
현대 금강호 첫 출항
- 1999. 관광세칙과 신변안전보장을 위한 합의서 체결
북한 방문자 신변안전 대책협의회 구성
- 2000. 2. 현재 18만명 금강산 관광



1862

무력도발은 절대 용납하지 않습니다



14분 만의 승리, 그 순간 죽을 각오로 싸웠습니다

저는 참수리 325호에 타고 있었습니다. 북한 경비정을 들이받은 뒤 뺏머리가 선체에 한동안 박혀 있었으므로 북한군과 가장 가까운 거리에서 격전을 치른 셈이죠.
그 때 극도로 긴장했습니다. 서해 북방한계선은 우리의 땅이며,
이 땅을 침범한다면 누구라도 용서할 수 없다는 결의가 생기더군요.
죽을 각오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14분 만에 승리한 서해교전은 바로 우리의 안보가 튼튼하다는 증거입니다. 안보가 없는 화해협력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또 다시 북한의 도발이 있다 해도 저는 똑같이 막아 낼 것입니다.

서해교전 참전 안태성 해군병장





올해는 평화정착의 원년입니다



안보는 걱정 마십시오.
안보 없는 화해협력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의 영토는 든든합니다.





작은 실천으로 사실상의 통일을 만들어 가는 사람들... 그들이
안보로 평화를 지키고 화해협력으로 평화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남북경제공동체 건설

한반도 냉전구조 해체

남북간 이음치유

의 희망처럼
다.

希望

통일부
Ministry Of Unification
www.unikorea.go.kr

159-6222

대47C
C.2

00

200